



**국어 1등급을
정말 원한다면**

독서편

CONTENTS

독해편

CHAPTER 1

한평생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

- 1. 수능이란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20
- 2.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 23

독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사고 습관 10가지

-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27
-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천천히 읽기 32
-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와도 4분이다.
다시 읽기 37
- 최상위권들의 시험지는 백지에 가깝다.
지문에 표시하지 않기 42
-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교수님과 1대 1 미팅이다.
대화하며 읽기 46
-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는 대답에 만족하지 마라.
추상어 감지하기 49
- 일단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배경지식 쌓기 54
- 모든 글은 한 폭의 그림이다.
이미지화하기 58
- 교수님은 불친절하다.
부연설명 만들기 63
- 한 번 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법.
문장 재구성하기 71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습관 4가지

-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74
-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79
-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84
-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 91

CHAPTER 2

내가 1460일 만에 깨달은, 시험 칠 때 가져야 할 태도

- 1. 시간 절대 보지 않기
화작, 언매 15분, 문학 20분, 독서 40분,
마킹 5분이라는 환상 100
- 2. 함부로 과감하지 마라 102
- 3. 결국 침착함이 전부이다 102
- 4. 지문이 쉬워 보이는 순간을 조심해라 104
- 5. 배경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순간 틀린다 104
- 6. 어려운 문단은 2, 3개 밖에 없다 105

CHAPTER 3

이 책을 덮고, 혼자 공부할 때

- 1. 하루에 몇 지문 풀어야 해요? 108
- 2.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해요? 108
- 3. 시기별 공부법 108
- 4. 시험 친 직후 드는 회의감 110
- 5. 기출 분석법 110

기출편

기출적용편

-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지는 알았는데,
뭘로 공부하지? 114
- 14습관이 최고난도 문제에도 통할까? 114

인문

- 인문 1 2021학년도 수능, 북학론 117
- 인문 2 2022학년도 수능, 헤겔의 변증법 133
- 인문 3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156

과학

- 과학 1 2020학년도 6월, 공생관계 170
- 과학 2 2020학년도 수능, 레트로바이러스 190
- 과학 3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미생물 203
- 과학 4 2016학년도 수능 B형, 항부력 216

기술

- 기술 1 2021학년도 수능, 모델링·렌더링 229
- 기술 2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242
- 기술 3 2023학년도 9월, 댄핑 인자 256
- 기술 4 2022학년도 수능, 차량 카메라의 원리 272

경제

- 경제 1 2020학년도 6월, 미시·거시 건전성 286
- 경제 2 2020학년도 수능, BIS 비율 301
- 경제 3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317
- 경제 4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체제 335

법

- 법 1 2021학년도 수능, 계약과 예약 356
- 법 2 2020학년도 9월, 점유·소유 370
- 법 3 2023학년도 9월, 유류분 383

- 당부하고 싶은 말
【에필로그】 403

PROLOGUE

내가 고3이거나 재수생이라면, 이 책을 펴기 전 이미 많은 인강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과 비슷한 국어 공부법 책을 몇 권 찾아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찾아나서도 네 안에 있는 ‘애매함’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꾸준히 비문학을 풀어도 막상 시험을 쳐보면 틀리는 개수는 그대로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스스로는 잘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꼭 1문제씩은 틀렸을 것이다. 공부할 땐 성적이 막 오르는 거 같다가도 막상 학교에서 모의고사 쳐보면 또 성적은 그대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국어는 타고나야 하는 거라고, 재능이 없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랬다. 매일 3, 4시간씩 국어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비싼 모의고사도 사서 풀어보고, 나름대로 기출 문제집도 왕창 사다 놓고 많이 봤는데 중요한 시험에서는 항상 3, 4등급이었다. 글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갔고, 시험을 쳤다 하면 시간은 항상 부족했으며, 아무리 좋다는 강의를 들어봐도 성적은 제자리였다. 나도 너처럼 국어 성적 한 번 올려보겠다고 유튜브에 국어 공부법이란 공부법은 전부 찾아봤고,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에서 좋다는 인강은 전부 들어봤다. 그런데도 성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국어 잘하는 법을 물어보면, 그냥 글을 많이 읽으라고 하거나 국어는 타고 나는 게 크다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한다.

재수를 결심하고 2개월 만에 ‘1등급’에 도달한 것이다. 나는 정말 ‘우연히’ 찾은 국어 공부법을 통해서, 내가 여태껏 해왔던 고민들이 말끔히 해결됐고 국어 성적은 ‘고정 1등급’이 되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로 ‘14습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14습관’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400p에 걸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네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책에 있는 방법이 정말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다른 1타 강사들이 말해주는 것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더 좋다고?”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다. 너도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국어 1등급은 많다. 하지만 만년 3, 4등급에서 2개월만에 고정 1등급으로 성적을 올린 사람은 매우 적다. 보통 계속 1등급을 받던 친구가 수능 때도 1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적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왜’ 성적이 수직 상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공부법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거의 없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나는 고3 내내 만년 3, 4등급을 받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처음 친 모의고사에서 국어 5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국어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재수를 결심하고 단 2개월만에 ‘고정 1등급’으로 성적을 올렸다. 1등급으로 올라선 뒤에는 6월, 9월 평가원을 비롯해서 사설 모의고사까지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쳐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성적이 오른 방법을 ‘국정원’이라는 책으로 썼다. ‘국정원’에서는 1등급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았다. 그렇게 ‘국정원’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국어 공부법’ 책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국정원’은 많이 팔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책이다. 아래는 내 유튜브, 인스타그램로 연락이 온 후기들 중 대표적인 후기들이다. 아래 후기 들은 정말 단 1도 조작하지 않았다. 궁금하다면 네가 직접 ‘범작가’ 유튜브 채널에 와서 확인해봐도 좋다.

국정원(전 국일만) 독자들의 생생한 후기

*단 한 글자도 조작하지 않은 실제 후기입니다.

5모 6모 때 4등급 받고 충격 받아서 국일만 독서 문학 사서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서)다는 안 읽고 어느정도 체화하는 데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읽고 공부했는데요, 이번 9모 85점 백분위 89 2등급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등급이 올라서 진짜 내 실력이 오른건가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한데.. 그냥 작가님과 저 자신을 믿고 그대로 해보려고요
수능 때는 꼭 1등급 받아오겠습니다. 파이팅!

👍 1 🗨️ 📄

오늘은 과학지문 보기문제 정답률 50% 마더텅 기준 1등급 문제도 맞췄네요
국일만에서 배운대로 읽으니깐 정답률 50% 보기문제도 선지 보자마자 아 이거네 하고 바로 풀었습니다
이제 정말 비문학 감을 잡은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14 🗨️ 📄 🧑

범작가형님 9월 5등급이던 내가 1달을 응급실에 거주할 정도로 지독하게 공부해서 89점 받아왔어요 썩은 동앗줄 잡는 심정으로 책을 구매했는데 비브라늄보다 튼튼할 줄을 생각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

👍 2 🗨️ 📄 🧑

6모 9모에서 4등급 받았었는데 수능 2등급이라니..지문 이 이해될 때 까지 시간들여 읽는게 맞는지 의심이 될 때쯤 쌤 영상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기존 공부법 그대로 믿고 나아갔고 그 결과가 수능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 🗨️ 📄 🧑

형덕분에 9모 국어 4따리가 이젠 넉넉하게 1등급 맞고 서울대 안정 뜬니다 사랑해요 형

👍 1 🗨️ 📄 🧑

6모 때 생전 처음 국어 62점 5등급 받고 너무 충격받아서 시험지도 다 찢어버리고 망연자실하다가 국일만이라는 책을 알게 돼서 9평 한 일주일 전에 딱 기출편 직전 습관 적용하는 부분까지 읽고 그냥 속는셈 치고 지문에 표시도 처음으로 안 해보고 시간도 제한 없이 풀어봤는데 정답률이 확실히 더 오르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잘 풀리는거겠지~ 라며 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실전에서 시간만 좀 줄이고 문제 푸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더니 결국 9평때 84점까지 올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첫 2등급 받아봤습니다..ㅠㅠ 물론 턱걸이이긴 하지만 정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정도로 효과를 본 공부법은 처음이었어요 이대로 유지해서 수능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8 🗨️ 📄

안녕하세요 범작가님 국일만 문학,독서
저서로 공부했던 n수생입니다.

올해 4월에 다시 n수를 결심했고 한달 정
도 국어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었
고 시간할애는 많았지만 실력이 느는 느
낌이 들지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작가님의 영상을 보게 되
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능 국어의 본
질을 정확히 말씀해주는 거 같아 인강
을 당분간 끊고 국일만으로만 진득하게
한 번 국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구매
해서 꾸준히 한달 동안 반복하고 따로 필
기도 해가면서 이미지화,내면세계 공감,
추상어감지 등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가제
야 할 마음가짐들을 체화해나가려고 노력
했고 문제를 풀때도 생각의 그릇이 치우
쳐지지 않게끔 국일만식으로 국어공부를
계속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
고 채점하는 당일에 아 내가 올바른 국어
공부 방향을 찾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
니다. 아직 이미지화, 내면세계에 공감하
는 속도가 느렸던지라 고전소설 세트를
찍어야 했지만 풀었던 모든 문항이 맞아
서 이게 올바른 공부방향이구나 앞으로
이 방식이 더 익숙해지도록 더 열심히 공
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꾸준
히 3시간씩 한 결과 중간에 힘들기도 했
지만 9월, 수능에 모두 1등급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ㅎㅎ

범작가님이 제시해주신 국어 공부의 길
덕분에 매년 수능 날 1교시에 겪었던 저에
게는 박준의 전짓불 같았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
니다. 정말 수능 채점 당일 날 저도 모르
게 눈물이 나더라구요 저에게는 공포였던
수능국어를 극복했다는 마음에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 받는 느낌? ㅎㅎ

만약 작가님이 책 쓰실 때나 혹은 살아가
다 힘든 시기가 오신다면 저 같이 흐릿한
세계를 단지 흐릿한 세계로만 보았던 사
람들에게 그 흐릿한 세계를 닦아서 볼 수
있게 내가 길을 제시해주었고 많은 사람
들에게 희망을 주었구나 라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힘이 많
이 나실겁니다 ㅎㅎ

1년동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댓글을 안남길수가 없네요 24수능 보고온 현역입니다 9
모때는 문학6개틀렸고 범작가님 유튜브만 보다가10월중
순짬에 국일만 문학편만 봤습니다.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
지만 범작가님이 말하신 내면세계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었고 오늘 채점해보니까 문학은2개빼고 다 맞았네요 감
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국어방법 따라가
면 무조건 등급 나옵니다.

이게 맞나? 하는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고
일단 문학이 재밌습니다 하하

👍 16 🗨️ 📄 👤

6모때까지 국어 6등급 나오다가 국일만 비문학편 읽고
9모때 3등급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문학은 정말 갈피를
못 잡았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아직 기출 분석은 다 못하고
국일만에 수록되어있는거만 했었는데 앞으로 기출
분석도 하고 국일만 문학도 하고 영일만도 하고 수능때
1등급 받아오겠습니다! 제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9 🗨️ 📄

비문학을 풀때마다 거의 다틀렸었는데 비록 많은 시간
이 걸렸지만 작가님이 말하신 국일만 방법 적용 해봤는
데 드디어 정확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
다!!

👍 78 🗨️ 📄 👤

저 국일만으로 공부하고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안정적
97점 맞았어요 감사합니다ㅠㅠ 수능때까지 달릴게요

👍 19 🗨️ 📄 👤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4 수능 화학 백분위 97 1등급 받았습니

다. 9모 때까지도 3등급을 받으며 만년 3등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지인의 추천으로 국일만 시리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국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어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만년 3이던 국어가 1이 나와 기쁜 것도 있지만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에 너무 재미를 느끼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성 이과였던 제가 인문학이 너무 좋아져서 진지하게 문과 진학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ㅋㅋㅋㅋ)

정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잘못된 방법에 매달리며 수능판을 떠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국일만 독서, 문학 최소 3번씩만 정독해보세요. 국어의 깨달음을 얻게 되실겁니다.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말도 안되는 교재입니다. 단언컨대 수능 역사상 최고의 국어 교재입니다.

👍 15 🗨️ 📧 🧑

2-3등급 간당간당하게 운빨로 유지하다가 9모 국어 제대로 털리고 4떠서 뒤늦게 국일만 사서 봤다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국어 공부하는 다 헛공부였던 느낌... ㅋㅋ 그래도 이제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다행인듯 국일만 열심히 조져서 수능 대박내오겠습니다,,,

👍 2 🗨️ 📧

이분 ㄹㅇ 말이안됨 ㅋㅋ 고2인데 9모전까진 다 국어 3, 4뜨다가 눈물을 머금고 방학때 문학 독서에서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이미지화, 쉬운말로 바꾸기 이 두가지만 지키고 공부하 기간 9모때 4 -> 1로 올라가버림

👍 14 🗨️ 📧

11월 17일 오후 4:06

작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출뻔한 과거를 뒤로하고 국어 '덕분에' 최저를 맞추어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비록 2등급의 점수대이지만 국일만에서 얻은 깨달음들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을 남기려면 길게 누르세요

국일만 완독했는데 진짜.. 너무 통쾌하고 이제 공부할 때 행복해요ㅠㅠ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저도 재수생 신분으로서.. 이번 수능은 꼭 국어 1등급 꼭 받겠습니다!!!

👍 35 🗨️ 📧 🧑

솔직히 국일만 읽고, 아.. 이걸로 성적이 오를까? 3등급만 고정으로 해두자란 생각으로 임했는데, 진짜 효과가 좋더라구요. 국일만을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다른 교재처럼 막 회독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 인강을 볼 필요없이 해설이 너무 자세하고, 제 읽는 습관을 잘 파악하여 교정해주어서 국일만 효과 체감도 긴 시간이 안 걸렸어요.

👍 3 🗨️ 📧

국일만 사서 읽고 적용해보고 있는데 진짜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된다는게 뼈저리게 느껴짐. 그리고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범작가님이 내 옆에서 명치를 패는 듯한 팩트를 맞게됨. 확실히 처음에 적용해보면 평상시 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확 됨 진짜 이거 읽고 잘못 공부했다 생각되고 후회됨. 근데 오히려 다행하게 차피 나는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안정적이게 공부하게 해줄수 있다는게 진짜 감사했음. 고민하지말고 꼭 지금이라도 사세요 안 늦었음 〇〇

👍 41 🗨️ 📧 🧑

국일만 진짜 최고였습니다 작가님
올한해 국일만으로 다져서
오늘 수능 95점 받아낼수있었습니다!!
완전히 습득하진 못한거같지만
국일만의 마인드를 되새기는것만으로도
국어 문제풀이에서 이점을 챙겨갈수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 2 🗨️ 📄

고1,2동안 국어는 제겐 최악의 과목이었습니다. 턱걸이
3이 커리어 하이 있었고 평소엔 4를 벗어나지 못했죠.
고3 3월에도 어김없이 4를 찍었는데 그 직후 범작가님
유튜브를 처음접하고 국일만책을 사서 공부하게 되었습
니다 다 배우고난 후 첫시험인 4모는 85점으로 2에 근
접하게 되었고 배운대로 연습을 하니 6모 90에 9모
86을 맞으며 이젠 안정적인 높2라인에 도달했네요. 국
어에 있어서 범작가님은 은인이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3 🗨️ 📄

6모 이후로 국일만 구매해서 비문학 문학하고있는데 성
적이 무조건 오르겠다 라고 확정은 못하지만 글을 읽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해요

👍 39 🗨️ 📄 🧑

ㄹㅇ 국일만 읽고 5에서 2찍은 사람으로서 레전드 책이
간함

👍 313 🗨️ 📄 🧑

6모 9모에서 4등급 받았었는데 수능 2등급이라니..자
문이 이해될 때 까지 시간들여 읽는게 맞는지 의심이 될
때쯤 쌤 영상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기존 공부법 그대로
밀고 나아갔고 그 결과가 수능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 🧑

👍 🗨️ 📄 🧑

6모 이후부터 국일만 보기 시작해서 수능 전까지 기출,
국일만 이렇게 두 개만 봐서 3-->1로 마무리 했네요.정말
감사합니다 범선생님 🧑

👍 1 🗨️ 📄 🧑

9모 이후로 뒤늦게 사서 남은기간동안 국일만이란 기출만
이라도 열심히 돌렸는데 수능때는 6.9모보다 한 등급 올랐
어요!!! 비록 1등급은 아니지만 글 읽는 방법 자체를 배운
것 같아 국일만 읽을 때만큼은 국어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
요 🧑 다른 국어문제집은 다 버려도 국일만만큼은 너무 귀
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범
작가님 감사합니다!!

👍 1 🗨️ 📄 🧑

비록 멘탈이 나가서 수능국어를 잘 보진 못했지만 제 수험
생활동안 국어공부할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분을 꼽
자면 범작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수4등급에서 국어 1
등급을 찍어볼수있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시 수험생활을 하게 된다 해도 범작가님 교재를 또 사서
보게 될것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범작가님
교재를 거쳐 갔으면 좋겠네요!! 🧑 🧑

👍 3 🗨️ 📄 🧑

22수능 백분위39
23 대학1년(반수x)
24수능 백분위89
이거
읽고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 🗨️ 📄 🧑

범작가님 !! 저 ㄱ국어 5였다가 국일만 읽고 이번에 독서
문학 합해서 하나 틀렸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 수능까지
믿고 가볼게요 ㅠㅠ

1 1 1 1

06현역. 범작가님 믿고 3월까지 국일만+기출 조금 이렇
게만 공부했는데 3모 90점 백분위 98 나왔습니다 ㅠㅠ 수
능까지 꼭 범쌤만 믿고 달릴게요 늘 정말 감사합니다...ㄱ
ㄱ(범작가채널나만알고싶다아니아떡상해야지아니아나만
알고싶어.....이미유명하시지만딱내년부터대성공하셨으
면좋겠어.....

1 1 1 1

국일만 방식으로 겨울방학때부터 공부하다가 3모까지 50
점대로 5가 계속 뜨길래 이게 맞아 했는데 이번 6모 풀면
서 독서에서 지문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문제 들어갔을 때
답이 다 보여서 소름돋았어요.. 그래서 시간때문에 가,나
지문 손 못댄거 제외하고 2개 틀렸더라구요 문학도 계속
심상그리면서 풀었는데 결국 처음으로 70점이지만 70점
대가 나왔어요...!! 당일 컨디션도 그닥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올라서 더 열심히 기출 분석해보려구요!! 요즘 주변에서 다
들 ebs 노래를 부르지만 저는 범작가님 믿고 정진해보겠
습니다!!!

20 1 1 1

범작가님! 반수준비로 2주동안 국일만 노베 독서,문학으로
공부하고 6모 치뤘는데,
작수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국일만으로
쪽 사고력 기르는 공부 정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7 1 1 1

고3까지 아예 공부안하고 놀다가 마지막 3개월 공부하고
수능 국어 7등급 받고 재수중인 학생입니다. 문학,비문학
노베부터 기본까지 2주 전에 구입하였고 하루에 4시간씩
노베이스 비문학편을 1회독 하였습니다. 제 공부 방식은
국일만에서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싹 다 고치고
6모 결과 독서에서 글을 이해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틀린 그림 찾기와는 다르게 글을 읽는데 많
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해가 되니까 문제가 빠르게 풀렸고
17문제 중 4문제 틀렸습니다. 국어 1등급까지 달리겠습니
다. 범작가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1 1 1

아직 고2 지만 범작가님 영상 보고 국일만으로 학습해서
고13모 4등급에서 고26모에서 다맞았습니다!! 정말 국어
는 깨달음이 중요한것이라는걸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국
어가 최애가 되었어요 ㅠㅠ

2 1 1 1

원래 유튜브에 댓글 잘 안남기는데 진짜 거의 기적같아서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어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언제나 모고에서 5만 뺐었는데 이 영상보고
국일만으로...공부했더니... 처음으로 2등급을 웃도는 점수
를 받았습니다... 전 한 달도 안했는데 ㅠㅠ 진짜 감사합니다
9모랑 수능은 꼭 1등급 받을게요...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서 지금 너무 벅합니다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국일만을 알
게 된 게 올해 가장 운 좋은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91 1 1 1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024수능 49점 나오던 사람입니
다. 현재 고1이고, 3월 모고도 87점 맞았습니다. 진짜 국
어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은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일만 문학,비문학 노베이스, 문학 기본편 보고 이번 고1
6모 96점 맞았습니다. 문법 하나랑 시간 부족으로 하나
틀려서 다음엔 100점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작년 ebs
final 모의고사도 고3꺼 80점도 맞았습니다. 정말 감사합
니다. 다음 모고랑 수능 꼭 100점 맞을게요

5 1 1 1

국일만은 재수생인 저한테 구원자입니다,,,ㅏㅏㅏ 작수 7 등급에서 올해 3모 1등급 찍었어요 사실 모의고사도 평균 2~3등급 나오고 5모는 아깝게 2등급이네요
저는 노베이스편도 다 읽었어요! 노베이스 끝나고부터 국어 인강 커리 났는데 오히려 문제 정답률은 내려가고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라고 하니가 더 못하겠더라고요?
초심 잡을라고 노베이스편 풀면서 풀었던 마더텅 지문이랑 인강 책 비교해봤는데, 인강 책에는 동그라미,네모, 화살표 엄청 늘어나있고 ㅋㅋ 정작 전에 풀었던거는 오히려 깔끔했어요 책에 함부로 표시하지 말자는 습관을 망각하고 지내던게 아주 잘 보이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ㅋㅋㅋㅋ 그래서 인강은 적당히 듣고 기출 분석하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꼭 찾아봅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경제 분야도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오만거는 다 찾아봤어요 암세포 파괴되는 영상,,물리학 기초,,화소,,,등등등 무슨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범작가님께서 옛날 기출부터 풀어라고 해서 열심히 도장깨기 주구입니다 재수생 화이팅 6모 1 받자요,,,

👍 47 🗨 📄 🧡

범작가님 어디에 남겨야 할지 몰라서 가장 최신 글에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국어 대박났습니다...🥳🥳
🥳🥳 9모 4뜨고 속는셈 치고? 국일만 문학 비문학 사서 풀고 기출도 거기 써있는 방법대로 돌렸는데 이번 수능 3등급 활짝 열었습니다...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은 못 맞았지만 이 점수라도 진짜 감지덕지라ㅠㅠㅠㅠ 덕분에 인생 최대 점수 받았습니다 4등급에서 갈피를 잃으신 분들 꼭 국일만 사서 풀어보세요 문제 푸는 방법,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 🗨 📄 🧡

올해 7월달에 범작가님 영상을 접하고 국일만 문학편을 구매해서 공부한 학생인데요 진짜 살면서 국어 1등급을 이번 수능에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문학을 읽는 방법을 점점 깨닫는게 신기하더라고요 덕분에 만년 국어 3등급을 받았던 제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작가님께 정말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9 🗨 📄 🧡

범작가님 재수생인데 국일만 덕분에 24수능 70점->3월 더프 81점-> 3월 교육청 85점->강대k 97점->4월 더프 93점 받았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1월부터 3월까지 국일만 독서와 마더텅만 하루 6시간씩 공부하면서 더이상 지문을 처리 양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납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국일만이 없었다면 전 올해도 작년과 같이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이해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3 4등급에 머물렀겠죠

그리고 국일만을 공부하면서 글을 이해하는 정도가 올라가고 태도가 교정되니 이상하게 언제 정답률도 매우 높아졌어요. 아마 지문뿐만 아니라 선지도 구체화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독서를 통해 깨닫고 나니 그 깨달음이 언제 특히 지문형 문법과 매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평가원 기출로 남은 수능까지 같이 닦겠습니다. 진짜 댓글알바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뭘 해도 국어 34에서 탈출을 못 한다 싶으시면 국일만 무조건 사시고 시키는 대로 공부하세요 인강따윈 필요 없습니다

👍 66 🗨 📄 🧡

이거 진짜 찌인게.. 저도 국일만 책 두권 사고 공부 하기 전에 이게 진짜 되나 생각하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사람 말처럼 두달 해보고 후기 알려준다고 함
진짜 잘해봐야 4등급인 나여서 불신 가득 이 책을 정독했는데 일단 독해력은 확실하게 늘음 그리고 6모 9모 1등급 받았음.. 18살 자퇴생이라 시간도 많은 상태여서 이정도 실력 확보이면 진짜 만족함..맨날 인강 보면서 기출 돌려도 그냥 성적 오른다는 느낌도 못받고 그래서 어떻게 지문을 읽으라는거야 라는 생각들었는데 이책이 딱 깔끔하게 설명해줘서 점점 국어에 대한 미스터리가 점점 풀리는 기분..진짜 제 주위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만 몰래 추천해 주는 중임 ㅠㅠ

👍 78 🗨 📄 🧡

고1 국평오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씩 고1,고2,고3 문학 독서를 공부했는데 2,3등급에 정체되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우연히 국일만 책 보고 영상되르면 개나소나 국어 1등급 나오겠다하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독서편을 구매했는데 책에서 국어의 본질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바, 해설 퀄리티 자체가 기존의 분석서들보다 더 친절하고 깊이가 있어서 깜작 놀랐네요. 독서는 물화생지는 고2때 다 공부했고 경제,정법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잘했는데 철학,논리학에서 완전 개박설이 났는데 문장 하나하나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한 지문을 1시간씩 붙들다 보니 독해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상승했네요. 고3 기출집에 있는 제한시간 14분짜리 지문들 푸는데 5분에서 7분만에 풀리게 되면서 부족했던 국어 시간이 널럴해졌어요(고3 모고 기준 15분 남고 백분위 98) . 국일만 독서편에서 엄청난 감동을 얻고 문학(체육식으로 소설 밑줄 치면서 문제 왔다갔다했던 허수)편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문학의 본질 감상능력이 뭔지를 알려주니 문학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문학은 4문제 틀리던 실력에서 1문제 틀리는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현대소설에서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면 아직은 이해하는데 난해함이 있지만 국일만의 가이드를 잘 체화하면 문학 만점도 가능성이 보이네요. 고1 백분위 58에서 고2 마지막 모고 백분위 99(원점수 92점, 언매 까먹어서 4문제 틀림..)를 찍었고 2학년 2학기 마지막 독서 내신 다 던지고 시험날에 국일만 뇌지컬로 시험쳤더니 독서 2등급(서술형 대비했으면 1등급인데 ㅠㅠ)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태껏 책 때문에 감동받은적이 없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감동 받은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른 과목은 다 1등급 나오는데 국어 삼등급 이과생들이 국어때문에 발목 잡히는게 안타까워서 친한 친구 10명한테 이 책을 추천해줬고 성적 상승기를 말해주니 10명다 독서,문학을 사서 열심히 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꼭 현역으로 서울대가고 친구들은 의대가 겠습니다!

ps. 독서 잘하는 이과들은 문학이라도 사서 읽으셈 내면세계 이미지화 이게 ㄹㅇ 맛도리임. 국일만 별로 안 어려운데 국일만 노베로 시작해야할 노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셈 ㅍㄹㄷ 한글 읽을 줄만 안다면 국일만 체화 싹가능

작가님 저도 국일만 덕분에 9모 백분위 48로 5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백분위 96으로 1등급이 되었습니다 항상 국어가 문제였는데 이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7 🗨️ 📄 👤

작가님 유튜브랑 책 보면서 공부한 미대 준비하던 삼수생입니다

예체능 재중학원에서는 늘 ebs공부만 시켜서(6모, 9모에서 ebs연계 많이 되길래 굳이 끊을 이유는 없겠다 싶었음) 본질적인 독해/읽기 공부는 오후 자습시간에 작가님 책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연계 체감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문학 진짜 달달 외웠는데ㅋㅋㅋㅋ

그래도 학원 공부에서 멈추지 않고 기본적인 읽기법을 익혀서 그런지 국어 2등급 뜨고 나머지도 그러저럭 무난하게 받아서

며칠 전 서연고의 연고대로 불리는(?) 국민대 조형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국어 공부는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거 같아요 꾸준히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책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진짜로

👍 15 🗨️ 📄 👤

나는 3, 4등급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왜 오르지 않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 기출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왜 국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지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3, 4등급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평범한 국어 실력의 3, 4등급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3, 4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

내가 국어 공부법을 터득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국어는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누구나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물론 타고난 재능에 따라 1등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정말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학창 시절에 누구보다 회의적인 학생이었다. 정말 하루 5, 6시간씩 국어 공부만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합리화를 했다. 국어는 소위 ‘재능충’들만 1등급을 받는 과목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국어는 그 어떤 과목보다 정직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말이다.

이 책을 쓰기 전, 나는 이미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 달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교보문고에 가서 국어 공부법 관련 책을 전부 뒤져보았다. 대략 하루 평균 2~3권씩, 70권 정도 훑어보았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모두 다 뒤져본 뒤에 나는 이 책이 여태껏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보다 이해하기 쉽고 도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단 한 권도 이 책과 비슷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젠 네가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스스로 느낄 것이다.

기존의 책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공통된 특징’은 글을 읽는 ‘본질적인 방법’을 말해주기 보다는 글 읽는 스킬 같은 잡다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시 독해, 구조 독해, 문단 번호 매기기, 기호 표시 등등.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은 이미 1등급인 학생들에게나 유용한 것이었다. 또 그런 기존 책들이 말하는 방법은 시험장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생각해 보라. 정말 네가 여태껏 배운 것들이 시험장에서 생각나던가? 그 책들이 말하고 있는 방법들은 체화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내가 봤을 때 3, 4년은 그 방식대로 읽어야 쓸 수 있을 거 같은 방법들이 수두룩했다. 그뿐만 아니라 책에서 쓰는 단어나 문장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3, 4등급 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분명한 건 내가 3, 4등급을 받았었던 고등학생 때 그런 책들을 봤다면 아무 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내가 3,4등급이었을 때 이 책을 읽었다면 깨달음을 얻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매 문장마다, 매 문단마다 이 생각에 맞춰 검토를 했다. 결론은 “반드시, 그렇다.”였다. 이 책의 원고 집필을 끝내고 정말 강한 확신이 들었다. 내가 3, 4등급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재수를 하지 않고 고3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한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다는 듯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매년 등장하고 있다. 이 책에는 2등급 이하 학생들이 국어 공부할 때 고민하는 내용,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전부 담았다. ‘1등급의 시선’이 아닌, ‘3, 4등급의 시선’으로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소해 놓았다.

또한 정말 3, 4등급이 읽어도 1등급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다. 문장 하나당 기본적으로 5번 이상의 검토를 했다. 추상적인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진 않은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문장은 없는지 정말 끈질기게 검토했다.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에 파일을 옮겨서 계속 읽고, 이동할 때도,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도 짹짹 검토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다. 이 정도까지 상세하고 와닿도록 독서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을 거라고. 정말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봐도 독서는 걱정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이 책의 구성이나 내용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확신한다. 물론 기본적인 지문 해설이나 개념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비문학 독해의 ‘14습관’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갖춰야 할 시험장에서의 태도’ 등은 기존의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방법이다. 또한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모든 글은 한 쪽의 그림이다’, ‘사자는 함부로 달리지 않는다’ 등 흥미로운 독해 개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 제시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상위 4%의 독해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이 책을 읽은 뒤, 너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손에 꼽을 것이다. 또 글을 읽고 난 뒤에,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지만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많이 놀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확실하게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적이 오르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이 책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인지 설명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책이 네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책인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자, 그럼 이제
성적 한 번 바꿔 보자.”

☀ 구체적인 책 활용법

〈Chapter 1. 한평생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에서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수능’이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즉,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험인지 알아야 그 능력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글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14습관’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놓았다. ‘14습관’은 1등급들이 글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14가지 습관을 말한다.

‘14습관’을 하나씩 읽으면서, 자신이 여태껏 했던 독해와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이때 ‘14습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전부 외우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 습관들을 외우고 체화시켜야 하겠지만,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책을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14습관’이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 다음 〈Chapter 2. 1460일 만에 깨달은 시험장에서의 태도〉에서는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강조한다. 수능도 하나의 ‘시험’이기에, 그 특징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한다. 그래서 해당 챕터에서는 ‘시험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팁들을 말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시험장에서 사소한 것들로 실수가 발생하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이 파트에서는 네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해주면서 네 점수를 책임질 예정이다.

〈Chapter 3. 이 책을 덮고 혼자 공부할 때〉에서는, 이 책을 다 읽은 뒤 네가 스스로 비문학을 읽어보고, 공부 계획을 짜고, 시험을 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적어 놓았다. 이 책을 덮고 난 뒤, 네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트이다.

‘독해편’ 이후에 이어지는 ‘기출 적용편’에서는 14습관을 전부 적용해서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놓았다. 오답률을 기준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비문학 지문들만 선별해놓았다. 왜냐하면 ‘14습관’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지문에서도 통하는 방법이어야 네가 믿고 공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책이다. 따라서 1등급이 되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지문들로만 구성을 한 것이다. 그저 그런 난이도의 지문으로만 연습하면 1등급은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기출 해설 속에 ‘어떻게 읽어야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지’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 ‘14가지 습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정말 이 방법대로 풀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것이다. 내가 3, 4등급 학생들을 과외 할 때 설명해주던 방식 그대로 옮겨 났으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풀기 전에 앞서 배운 ‘14습관’을 노트에 옮겨 적기 바란다. 그리고 비문학을 풀기 전마다 반드시 그 습관들을 한 번 정독하고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14습관’이 빨리 체화가 되기 때문이다. 딱 30일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이후부터는 글을 읽는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로 느껴질 것이다. 아마 지금은 믿을 수 없겠지만.

국어가 어려운 건 네 탓이 아니다.

아무도 너에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챕터에서 그 지나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자.

독해편

CHAPTER. 1

한 평생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

1. 수능이란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자, 글 읽기 방법을 말해주기 전에, 일단 먼저 우리가 치는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출제자는 ‘수능’이란 시험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걸까?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능에서 비문학을 출제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독해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독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출제자는 네가 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비문학을 출제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2, 3, 4등급 학생들은 글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등급대 학생들은 이해를 못 했음에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아무도 이해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등급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글을 이해했는지 알아낸다. 그래서 그들은 1등급을 받을 때까지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독해력’이 길러져서 1등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평가원이 요구하는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수능이 비문학 파트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독해력’이라고 통쳐서 말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는 바로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 침착함’이다. 이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를 참고했다.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 침착함’이라는 단어들에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나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아래에서는 각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그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다.

① 독해력

‘독해력’이란 ‘읽을 독(讀)’, ‘풀 해(解)’, ‘힘 력(力)’ 자를 써서, 말 그대로 글을 읽고 풀어내는 힘을 뜻한다. 이는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만한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익히 들어와서 별로 감흥이 없다. 네가 지금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지 않은가? 네가 답답한 이유는, 바로 그 ‘독해력’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니까 답답한 것이다. 그리고 또 독해력 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해봤자 그냥 ‘책을 많이 읽어라’ 정도이다. 근데 정말 책만 많이 읽으면 될까? 아니다. 어떤 원리로 독해력이 향상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면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독해력’은 오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독해력을 올리는가?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의 습관’들을 배워야 한다. 즉, 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글을 읽을 때 특정한 생각들을 해주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걸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책에서 바로 그 ‘생각의 습관’을 ‘14습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풀어내고 있다.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14 습관’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독해력’을 올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사고력

쉽게 말해서 ‘사고력’을 물어본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정보를 ‘조합’하고, ‘분류’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관련된 예시를 생각해내는 능력이 바로 ‘사고력’이다. 또 이 문장에서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다른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내는 것도 ‘사고력’의 일종이다.

‘독해력’이 글을 ‘이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라면, ‘사고력’은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글 속에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거나, 그 글이 옳은지 그른지까지도 생각해 낼 수 있는 힘을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능은 네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출제자는 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하는 힘이 얼마나 길러졌는지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고력이란 능력 또한, 다음 장에서 말할 ‘14 습관’들이 없으면 길러지지 않는다. ‘14 습관’ 없이는, 사고력을 기르려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쉽사리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③ 어휘력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들 중 뜻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가?

- | | | | | | | |
|--------|------|--------|--------|--------|--------|------|
| - 현학적 | - 통화 | - 도상적 | - 여론 | - 바야흐로 | - 검연쩍다 | |
| - 향유하다 | - 환율 | - 지양하다 | - 시인하다 | - 금리 | - 재화 | - 규범 |

위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봤던 단어지만, 정확하게 뜻을 말하려니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단어들은 모두 기출 문제에 ‘여러 번’ 활용된 단어들이다. 위 단어들 중 절반 이상이 헛갈렸다면, 수능 1등급을 받기에는 어휘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휘력’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 글쓴이는 A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읽는 사람은 그 단어를 B라고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두 단어씩 글쓴이의 생각을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지문 전체가 추상적으로 읽힌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나, 구체적인 상황들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럼 당연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해의 수준과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국어에서 어휘력은 성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어휘의 의미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휘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예 모르는 단어 몇 개만 찾아볼 뿐, 애매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은 찾아보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 답은 ‘귀찮아서’다. 바로 내가 그랬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게 지문 읽으면서 느껴지는데도, 어휘를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찾는다 해도 겨우 1, 2단어 찾고 끝냈다. 사실 국어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도 찾아본다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그렇게 계속 어휘력을 기르지 않은 채로 글을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나고, 문제를 틀리게 될 텐데.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애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단어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책을 한 권 사고, 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낯선 단어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둔다. 그리고 공부가 마무리될 시점에, 휴대폰으로 각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서 공책에다가 적어 둔다. 공책에다 적을 때는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인 ‘예시 문장’도 함께 적어 놓으면 훨씬 빨리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어휘력도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빠르게 오른다. 안 그러면 지문도 계속 명확하게 안 읽힐 것이고, 무조건 나오는 2점짜리 어휘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4 침착함

모든 시험이 그렇듯, 수능도 어쨌건 ‘시험’이기 때문에 ‘침착함’이 요구된다. 아무리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라도 지문을 읽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내가 아무리 국어 1등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죽는다.”라고 옆에서 누가 총 들고 협박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문제 풀기가 어려울 것이고, 분명 실수가 나온다.

침착함을 높이는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시험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글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정말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침착함’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침착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긴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침착하다’라는 말 자체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한 상태에서 평온하게 문제를 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8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없는 채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당연히 ‘침착함’도 길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글 읽기 능력인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을 높여야 한다. 뻔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다. 서울대 수학과 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푼다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긴장도 안 할 것이다. 이렇듯 긴장하지 않는 방법은 근본적인 실력을 올리는 것이다. 1등급들도 시험 칠 때 당연히 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등급을 받아내는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1등급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시험을 치든 1등급이 나온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떨지 않고 1등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2.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

제목을 보고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라고? 습관 14개? 어떻게 다 외워...’. 그러나 내가 앞으로 말할 14가지 습관 중 하나도 안 하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14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몇 가지를 이미 하고 있다. 적게는 2, 3개부터 많게는 8, 9개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14습관’을 하나씩 보면서, 네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면 습득하고, 하고 있던 것이라면 확신을 얻으면 된다. 나는 각 장을 순서대로 보길 추천하지만 제목을 보고 네가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전부’ 읽기 바란다. 그리고 ‘14습관’을 한 번에 외우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외워나가면 된다. 그리고 네가 굳이 힘들게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외워지도록 ‘기출 적용편’을 만들어 냈으니 걱정하지 말자.

그럼, 이 ‘14습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해력’,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앞서 네가 ‘수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 파트를 이해했다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 ‘국어를 잘하려면 독해력,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 능력을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빨리 그 방법을 말해달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독해력,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극해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

그렇게 가볍게 읽을 문장이 아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봐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는가? 앞으로 국어 공부 방향에 있어 이정표가 되어줄 문장이다. 먼저 ‘머리를 자극하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 머리를 자극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동화책만 읽는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똑똑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계속 동화책만 읽는다면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 아마 동화책을 몇 천권 씩이나 읽어도 그 사람의 독해력과 사고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화책에 나오는 사고는 고차원적이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독해력’과 ‘사고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큰 자극’이 필요하다. 이때 ‘큰 자극’은 동화책이나, 교과서 읽기, 친구들과끼리 하는 대화로는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머리에 어떻게 ‘큰 자극’을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처음 읽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지 문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글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계속 부딪혀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글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한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머리를 자극하게 되고 독해력과 사고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내 독해 수준보다 어려운 수준의 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네가 지금 고정 1등급이 아니라면 그 글은 바로 ‘기출문제’다. 네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네 독해력이 기출 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완벽히 이해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면서,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독해력과 이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출문제에는 우리가 평소 접하는 글과 대화의 수준보다 훨씬 어렵고 수준 높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력, 이해력이 길러진다.

▶ 고차원적 생각을 하는 방법

아까 나는 위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머리를 자극하고, 고차원적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머리를 자극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그런데 ‘머리를 자극’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이미 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기출 문제를 풀어도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다. 왜냐면 두 번째 조건인 ‘고차원적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고차원적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1등급으로 가겠네?”

정답이다. 그리고 그 ‘고차원적 생각을 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앞으로 말할 ‘14습관’이다. 그래서 ‘14습관’을 배우면 누구나 1등급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14습관’에서 말하는 대로 기출문제를 풀면 ‘머리를 자극하고 고차원적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독해력’과 ‘사고력’이 오르기 때문에 1등급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4습관’을 보면서 1등급들이 어떻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자.

3. 국어 1등급의 14가지 습관

독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사고 습관 10가지

1.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2.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천천히 읽기
3.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와도 4분이다, 다시 읽기
4. 최상위권의 시험지는 백지에 가깝다, 지문에 표시하지 않기
5. 글을 읽는다는 건 교수님과의 1대1 미팅이다, 대화하며 읽기
6.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는 대답에 만족하지 마라, 추상어 감지하기
7. 일단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배경지식 쌓기
8. 모든 글은 한 쪽의 그림이다, 이미지화 하기
9. 교수님은 불친절하다, 부연설명 만들기
10. 한 번 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법, 문장 재구성하기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습관 4가지

11.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12.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13.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14.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

이제 이 14가지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단언컨대, 이 방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백날 죽어 공부해봤자
성적은 제자리일 것이다.

내가 4년 동안 이걸 깨닫지 못해서, 길을 빙빙 돌아왔다.
너는 직선으로 걷기 바란다.

첫 번째 습관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네가 지금 비문학을 어려워한다면, 문장을 ‘외우려고’ 덤벼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잘못된 강박 속에 있다. 과외를 할 때마다 3, 4등급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힘들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국어 공부를 하는 몇 년 동안, 글을 ‘외워야 하는 정보 덩어리’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글을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근데 네가 딱 한 번만 글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읽어 보면, 글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글 읽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글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읽어봐라. 문제는 알아서 풀린다.

글을 읽을 때 문장을 외우려는 태도는, 보통 채점하면서 생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틀린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본다. 그리고 답지에서는 ‘몇 문단 몇 번째 문장에 답의 근거가 있잖아. 맞지? 앞으로는 주의해서 읽어~’라고 말해준다. 그럼 너는 이 답지를 읽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 내가 저 문장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문장을 기억하고 가자’. 이런 생각 끝에 너는 글 읽으면서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외우려고 애쓴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없애야 한다. 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려고 덤벼드는 건, 완전 잘못된 태도다.

📌 문장 외우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

1. 기술이 변화했다.

예전 기출 문제에서는 그냥 냅다 외우는 태도가 몇 번 먹혀들었다. 왜냐하면 예전 시험 문제는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선택지에 박아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래는 2016학년도 수능 A형에 나온 지문과 문제다.

·지문 中·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 답: ②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전 기출은 지문에 있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선택지에 넣어놨다.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지 않아도’ 지문이란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시험 문제는 지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다음은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6번 문제다.

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 ②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 ③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 ④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냈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 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네가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모두 ‘지문에 없는’ 문장들이다. 무슨 말이라면, 네가 시험장에서 이 문장들이 맞나 틀리나 보려고 지문으로 돌아가도, 그 근거가 되는 문장을 하나로 콕 집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눈을 왔다 갔다, 아무리 굴려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지문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구분했어야 했다. 아직 이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한 번 풀어보길 바란다. 그러면 지문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요즘은 위 문제처럼 시험을 출제한다. 즉,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단순 눈 굴리기’로 풀 수 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 그런 걸까? ‘눈 굴리기’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버리면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애가 진짜 이해하고 맞힌 건지, 아니면 이해도 못 했는데 그냥 눈 굴려서 운 좋게 맞힌 건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왜 ‘고1, 2 때 국어 1등급’이던 학생들이 고3 때는 2, 3등급으로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 고1, 2 때는 선택지가 보통 ‘지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출제된다. 그래서 눈 굴리기로, 서치하면서 푸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고3 때는 위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1, 2학년 때 만점, 1등급을 받던 학생도, 문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고3 때는 3등급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수능에서도 1등급을 맞으려면 기억하려는 강박을 빨리 내려놓고 ‘이해’에 목숨 걸어야 한다.

2. 그 많은 문장을 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평균적으로 수능 비문학에 나오는 글은 한 지문이 25~3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한다? 이걸 다 외우는 건 컴퓨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즉, 문장을 전부 외우려고 달려드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 읽는 ‘태도’를 ‘암기’가 아닌 ‘이해’로 바꿔야 한다.

너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외우는 거’라고 나름의 반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네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문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시험장에서 그냥 ‘감’으로,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암기하고 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다 안다. 사실 너는 모든 문장을 ‘암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모든 문장을 외우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3. 출제자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문장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문장을 기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기억하려고 하면서 안 읽으면 문제로 갔을 때 ‘이런 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해 주겠다. 네가 정말 기억하려고 하면서 안 읽었기 때문에 문제로 갔을 때 “내가 이걸 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걸까? 아니다.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유를 똑바로 보야 해결책이 바로 선다.

1등급들은 모든 문장을 외울 수 있어서 문제를 다 맞히는 걸까? 아니다. 1등급도 우리랑 기억력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 1등급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나면, 1등급은 지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등급들은 지문을 이해하면 저절로 기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신기하게도, 네가 문장을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이해하면 저절로 기억이 난다. 거짓말 같은가?

아래 문장을 함께 보자.

먼저 스스로 원래 읽던 대로 아래 문단을 읽어보고 글을 이어서 읽기 바란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이 문장을 읽으라고 시키면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가 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단 머릿속으로 ‘암기’를 시작한다.

“파클리탁셀이 일단 세포 독성 항암제고.. 애가 세포 분열을 방해한다라..
그리고 세포 증식을 막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좀 복잡하네..”

전부 외우려고 덤벼든다.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왜? 출제자는 네가 얼마나 잘 외우는지를 측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이렇게 2, 3문장 정도 외우는 건 가능할지라도 글에 나온 모든 문장을 외울 수는 없기에 분명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휘발된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하자.

“나는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바다에 놀러 갔어.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햇빛이 짹짹하게 내리쬐더라. 물놀이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따뜻한 모래사장에서 드러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어.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

이 글을 읽으면서 1등급은 글쓴이가 놀러 간 바다를 떠올리고, 글쓴이가 본 햇빛을 떠올리고, 따뜻한 모래사장을 느낀다. 그렇게 하면서 글쓴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다는 걸 이해한다.

반면 2등급 이하의, 글을 정보처리 대상으로 느끼는 학생들은 이렇게 읽는다.

“일단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랑 갔네 오케이. 이 부분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야겠다. 그리고 자갈이 아니라 모래사장이었네 이것도 외워야겠고,
저녁이 아니라 낮잠이었다는 것도 외워둬야 할 거 같은데...”

이상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글을 이렇게 읽고 있다. 아까 위 예시에서 네가 세포 독성 항암제의 역할, 표적 항암제의 역할을 외우려고 한 것과 뭐가 다른가? 제발 이해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기 바란다.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비문학 푸는 것을 보면, 서두르지도 않고 지문에 별다른 표시도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이해하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지문 읽기를 시작하자마자 문장을 외우기에 급급해 한다. 그들에게 문장은 ‘기억해야 할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지문을 외우려고 덤벼드는 자는 절대로 문제를 다 맞힐 수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두뇌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평가원은 우리에게 암기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원 사이트에 가서 출제 매뉴얼을 한번 보라. 그 파일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암기력을 측정한다’라는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평가원은 암기력을 전혀 묻지 않는다. 출제자가 암기력을 측정하지 않겠다는데 왜 문장 암기에 목숨을 거는가? 이해하면 저절로 기억된다는 것을 믿고 강박을 내려놓아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딱 한 지문만 읽어봐라.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시간은 몇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지금은 이해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이 사실을 고등학교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3등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재수까지 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너는 3년 아끼고, 당장 1등급으로 가길 바란다.